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초읽기’…국회 협상지도 바뀌나

4명 가세면 20석…“쟁점법안·선거구 확정 등 적극 참여”

새누리, 교섭단체 구성 전 더민주와 법안 처리 기류 감지

이번 주 내에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현재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16명이다.

여기에 금주 탈당이 예상되는 박지원·김영록·이윤석·박해자·이개호 의원 등 5명 중 4명만 국민의당 가세한다면 20명이 된다.

김영록·이개호·박해자 의원은 애초 이날이나 18일에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더민주가 김종인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를 띄우고 문 대표가 오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힘에 따라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민주를 떠난 호남 민심이 당장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중 추가 탈당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 데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당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현재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기성 여야 정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교섭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더민주와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선거구 협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소의석 확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도 영향을 받는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긴다. 현재의 여야 2인 간사 시대에서 3인 간사 체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안전행정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최소 1명씩 들

어 있다.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아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선임도 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자동으로 정보위원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창당까지 마치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50%를 동등 배분받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 있다. 이밖에 국회 본청에 사무 공간을 배정받으며 정책연구위원회도 지원된다.

한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대변인에 최원식 의원, 민생경제위원장에 장병완 의원, 통일위원장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법률위원장에 임내현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 김승남 의원, 디지털정보위원장에 김관영 의원, 창조위원장 정책특별보좌역에 권은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의 호남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을 앞선 것에 대해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라고 말한 뒤 더민주서 탈당한 호남 의원들을 많이 받아서 호남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좌불안석’ 국민의당 합류 지역의원

“인위적 물갈이·자기사람 심기 안돼”

교체지수 높아 물갈이론 대두…패이론 공천 갈등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합류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안철수 진영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4월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의당에 합류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부에 대한 불출마 및 물갈이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은 ‘현역의원=공천보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문제와 관련, “(공천과 관련된) 모든 판단과 검증, 평가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어느 누구의 기득권도 없다”고 공언한 바 있

다. 여기에 안 의원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태규 실무지원단장도 지난 13일 창준위 조직 인선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역의원이라도 공천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폭적 교체’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체 지수로 나타났다”며 “신당의 기반이 되는 호남 민심을 거스르라는 말이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은 “우리에게 전락공천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자는 것”이라며 “안 의원 측 일부 인사들이 인위

적 물갈이를 통해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공천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호남 국회의원들과 안철수 의원 참모진 간에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어떠한 공천 물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이 안심번호제 도입을 통한 경선을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천심사위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율과 교체 지수를 반영하는 한편,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 도입과 흑독한 검증 절차 등을 통해 필터링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 강의를 통해 김중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중인 ‘원톱’·文 사퇴 카드…탈당 행렬 멈출까

더민주 전북 의원 9명 잔류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김중인 단독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달 말쯤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탈당사태가 멈추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선대위원장 체제가 단독이나 공동이나를 놓고 지난 14일 인선 발표 때부터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진 끝에 결국 ‘원톱 체제’로 최종 정리됐다. 나아가 문 대표는 이달말, 늦어도 설 전에는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 측 인사는 17일 “설 밥상에 오를 민심을 생각하면 설 전에 당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이면 통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고 당도 선대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용을 갖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습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천과 야권 통합 문제를 놓고 김중인 선대위원장과 문 대표 측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표로부터 전권을 이양받았다고 말하면서 선대위가 갖고 있는 전권에는 공천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중진 그룹이 처음에 조기 선대위 중재안을 냈을 당시 선대위가 공천권까지 넘겨받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또 현재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의 의결 권한을 선대위로 포괄적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 쉽사리 동의할지 미지수다.

여기에 문 대표가 일점일획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이날 “편파적으로 치우쳤다가 하는 경우 약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가 총선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 통합을 강조해온 가운데 김 위원장은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한테 정력 쏟아부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일단 나간 사람들과 통합을 한다는 것이 쉽게 이뤄지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야당내 다른 세력과의 조기 통합에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표가 오래전부터 염두에 뒀던 전청백 의원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과거에 연연해서 나간 사람 다시 들어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SUV

2016 STYLE NEW

코란도 스포츠 탄생

빛과 블랙을 더해 더욱 압도적인 스타일

LED 주간 주행등 (DRL)

18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

레드 가죽 시트 패키지

RECREATION MACHINE | korando SPORTS

패키지 1

일시불 5년 / 10만km 무상보증 Upgrade

패키지 2

Safety 지리활부 선수를 ZERO / 3.9% 일방이차 / 36개월 + 2개월 블랙박스

구입 문의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전남점 : 순천중앙 723-7100
(061) 영암 473-3456
광안 761-8900

서광주 383-3434
목포중앙 277-8000
강진 433-3100
동광주 791-0071

광주광산 952-3330
순천 745-3666
해남 537-3100
무안 454-0099

북광주 971-0990
여수 683-1800
장성 395-0007
고흥 835-5050

광주및고흥 655-4001
목포하당 285-7576
담양 383-5811
진도 542-5888

동광주 515-1900
화순 371-3555
완주 642-1400

광주양산 573-8900
장흥 863-2600
영광 353-9500

나주 334-2727
보성 852-2892